

# 책무지개



발행처 : 정왕중학교  
편집부 : 책마루도서관  
발행일 : 2021.8.25.(수)

제2021-1호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98번길 28 정왕중학교 (070-7097-0511) <http://jeongwang.ms.kr/>

도서관운영안내 - 이용시간: 평일 08:45~16:45, 대출권수: 3권, 대출기간: 3주

## ■ 청구기호에 대해 알아보아요~

모든 도서관 도서의 책등에는 이런 청구기호가 있어요

청구기호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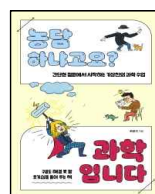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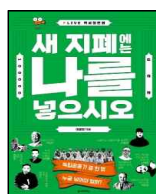
<b>813.6</b>	⇒ 분류번호	⇒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
<b>박65</b>	⇒ 저자기호	⇒ 저자의 성과 이름에 대한 번호 그은 서명의 첫 자음
<b>v.1</b>	⇒ 권차기호	⇒ 시리즈물인 경우
<b>c.2</b>	⇒ 복본기호	⇒ 동일도서인 경우

❖ 검색한 청구기호를 보고 서가에서 찾아 열람 또는 대출하시면 됩니다.

❖ <우리학교 자료검색>



## ■ 신간 도서 안내 (사진 출처: 교보문고)



## ■ 고전 읽기



에밀 아자르, 『자기 앞의 생』 -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프랑스 작가 로맹 가리(1914~1980)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두 번째 소설. 악동 같지만 순수한 어린 주인공 모모를 통해 이 세상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독과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성장소설 #사랑 #안락사 #차별 #소외 #인생

## ■ 책 속 밑줄 긋기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은 매순간 그 경이로움을 만나는 모험여행이다”

-파울로 코엘료<연금술사>/ 김○현(1-1)

“나는 내 우울을 쓰다듬고 손 위에 두기를 원해. 그게 짝어 맞볼 수 있고 단단히 만져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김초엽<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염○울(3-5)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어니스트 헤밍웨이<노인과 바다>/ 신○정(3-6)

## 독서기록장 이모저모

### 인상 깊은 이유 & 삶과 연결 짓기

너도 하늘말나리아/ 이금미/ 푸른책들



소희, 바우, 미르 세 명의 친구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정이 싹트는 모습이 보기 좋고 뿌듯했다. 자신의 상처도 많이 아플 텐데 다른 사람의 상처도 들여다보는 그들의 모습이 멋진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느껴졌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나의 아픔을 들여다봐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아픔에도 잘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다.

-박○림(1-4)

허구의 삶/ 이금미/ 문학동네



모든 사람은 선택지 앞에 놓인다. A와 B 중 B를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한 나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상상은 해봐도 그것이 사실인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었다. 상처 받은 두 인물의 삶에 내 삶을 빗대어 공감하거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책을 읽는 동안 꽤 몰입했다.

-김○향(3-3)

###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그 사람, 김원봉/ 김흥식/ 그림씨

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한반도의 자유를, 광복절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어요. 김원봉님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의열단 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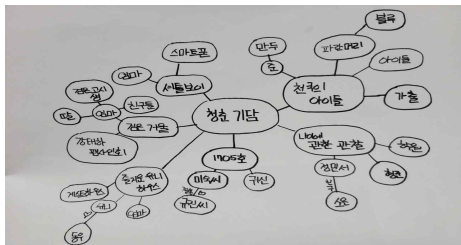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고 있지도 못했겠지요.

일제의 강시를 피해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준(1-6)

###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김○영(1-1)

### 배운 내용과 연결하기 & 질문 만들기



도리 H. 버틀러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 → “사이버 폭력”

Q. 왜 친구들은 익명 속에서 떠도는 말을 믿고서 친구를 따돌리고, 속닥거리는 것일까?

A.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지(3-4)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인공배아기술”

Q. 왜 순례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A. 순례자들은 지구를, 지구에 있는 존재들을 너무 사랑해서 지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염○울(3-5)

### 나만의 독서감상문

이경혜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아직 떠날 수 없는 나이에 꽃잎이 흩날리듯 사라져간 모든 소년들에게”란 작가의 말에 멍해졌다.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죽고 있는 건 아닌지...

-박○희(1-5)

이꽃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아빠를 이해하고 엄마의 존재를 알아가기까지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성장하는 은유. 아빠와 과거의 은유에게 마지막으로 온 편지를 읽고 심정이 어땠을까?

-이○희(3-2)



프란츠 카프카 <변신>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통해 자신의 본모습을 잃고 신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개그맨이 되고 싶지만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 휴가에 맞춰 성형 수술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모두, 자신이 진짜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나 역시 바쁜 일상 속 학교에 가고, 학원에 다닌다. 실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레고르가 되지 않는 길이다.

-김○원(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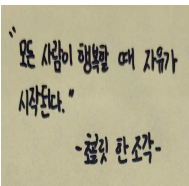


## 1학기 도서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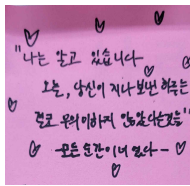
### 4월 책의 날 행사 & 책표지가방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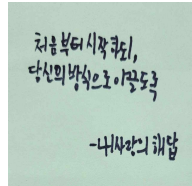
#### ‘책 속의 한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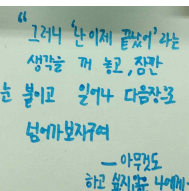
석○하(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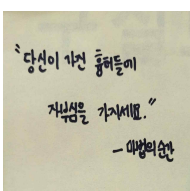
김○우(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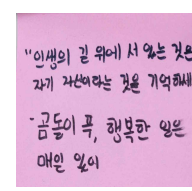
김○미(1-4)



최○정(2-2)



민○은(3-5)



이○녕(1-7)

### 5월 신간도서 이벤트



#### 책 추천 편지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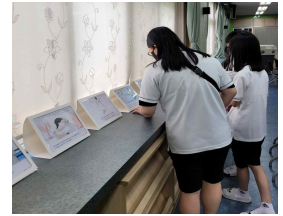


김선영 <특별한 배달>

평범한(?) 소년이 윤슬아와 만나 뽀글을 통과하여 추적을 해. 친구들과의 스토리, 진짜 일어날법한 뽀글... 우주와 세상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

-장○빈(1-4)

### 6월 원화전시(feat. 알로하 나의 엄마들)



#### ‘필사 & 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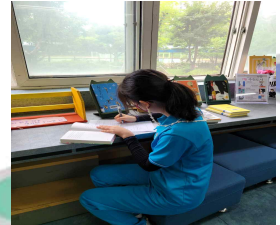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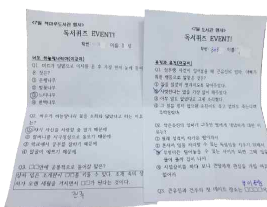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에서 파도가 달려오고 있었다. 해안에 부딪힌 파도는 사정없이 부서졌다. 파도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파도처럼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치며 살아갈 것이다. 할 수 있다. 내겐 언제나 반겨 줄 레이의 집과 나의 엄마들이 있으니까." (알로하, 나의 엄마들 p.386)

- "할 수 있다. 내겐 언제나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용기가 있으니까" -심○진(3-6)
- "할 수 있다. 내겐 언제나 반겨줄 친구와 가족 또, 노래가 있으니까" -남○린(3-5)
- "할 수 있다. 내겐 멋진 미래와 꿈이 있으니까" -박○희(2-2)

### 7월 독서퀴즈 이벤트

[대상도서: 너도 하늘말나리야/유진과유진/주머니 속의 고래(이금이)]



#### 7월 '이금이 작가님과 만남' 행사는

11월 12일(금)로 연기되었습니다~! 나쁜 코로나19

## 책마루도서관 주제별 추천도서

### ▶ 청소년 성장 소설

책 표지	제 목	내 용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황선미	누구라도 겪었음직한, 현재진행형으로 펼쳐지는 중2 교실 속 이야기.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당당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길 힘껏 응원해 본다.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주연과 서은이 크게 싸운 어느 날,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서은이 시체로 발견되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주연이 체포된다. 그날의 일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주연이 정말 서은을 죽였을까?
	〈유원〉 백은유	어렸을 적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유원. 언니의 죽음이 늘 뒤를 따라다니고, 당시 유원을 구해준 아저씨와의 관계도 좋지 않은 않다. 그때 나타난 수현의 존재, 유원은 조금씩 달라진다.
	〈리버보이〉 팀 보울러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의 손녀딸 제니. 수영을 좋아하는 제니가 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신비로운 소년 리버보이와 마주하게 된다.
	〈1의 들러리〉 김선희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맞서 싸운 용감한 '들러리' 10대들의 통쾌한 행동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설이〉 심윤경	12년 전 함박눈이 쏟아지는 새해 첫날 새벽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갓난아기로 발견된 소녀 설이. 세 번의 입양과 파양을 겪으며 상처받은 설이는 진짜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세상에 아프게 묻는다.
	〈방관자〉 제임스 프렐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방관자가 곧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한다. 또한, 학교폭력과 왕따의 가장 무서운 적은 침묵과 방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 올리버 폼마반	싱글맘인 엄마는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인스타그램 '비의 연대기'에 올린다. 팔로워 15만명 인스타그램 스타인 주인공은 SNS 세상에 갇혀버릴 것 같은 답답한 마음에 탈출을 시도한다.

### ▶ 환경, 기후위기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쓰레기책	이동학	오도스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동아시아

### ▶ 평화, 난민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나는 말랄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문학동네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정우성	원더박스

### ▶ 인권, 차별, 혐오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나는 엘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브래디 미카코	다다서재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김청연	동녘

### ▶ 미디어리터러시, 정보보안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구본권	북트리거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타니아 로이드 치	푸른숲 주니어

### ▶ 역사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역사의 쓸모	최태성	다산초당
식탁 위의 세계사	이영숙	창비

### ■ 도서관 퀴즈

Q. 아래의 구절이 나오는 책의 제목은?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라고.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 주고 바람이 되어 주면 된다고. 독립된 나무로 잘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게 친구라고.

도서관에 있는 퀴즈 상자에 정답과 이름(학번)을 적은 종이를 넣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 응모기간: 2021.8.25.(수)~9.15.(수)

### 도서관 에티켓!!!

- 많은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대출한 책은 대출 기간을 꼭 지키고, 읽은 책은 제자리에 꽂거나 북트럭 위에 올려 두어 다음에 읽을 사람도 쉽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도서관 이용 규칙을 잘 따르자!  
자료실과 열람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도서관 시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